

10/1/17

설교 제목: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 (자신과 복음에 대한 소개)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1-7

-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롬 1: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 (롬 1: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 (롬 1: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롬 1: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 (롬 1: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 (롬 1: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는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경위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바울이 아시아, 마게도냐 등에 전도 여행을 다니며 세운 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후에 로마로 이주해 그곳에다 교회를 세웠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12 개의 서신서(히브리서를 치면 13 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나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등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반해 로마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닌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요소가 서신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에 보낸 서신에는 각각의 교회 사정과 문제들이 열거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리적인 설명과 함께 해결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서신들의 내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부의 문제점을 다루기 보다는 기독교 복음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는데 있어 대도시를 기점으로 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꾼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갈 수 없게 되자 서신으로나마 로마 교회 아니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여 보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는 교리에서부터 성도의 삶의 윤리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입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책이지만 성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변화시킨 책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몰라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이단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 갑니다.

복음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신앙 생활도 자기 소견에 좋을대로 하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해 하기로 작정한 이유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에서 종이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토록 담대히 자신을 가르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왕족인데다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당시 상업의 중심지 다소 (지금의 뉴욕 정도 됩니다)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구요 (지금으로 치자면 하버드 졸업생쯤
됩니다).

바리새인으로 최고의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것을 그 가치대로 제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사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열 두 제자와
사도 바울에게만 지칭되는 호칭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바르게 해설하고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맡은 사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과 쓰이는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똑같은 그릇일지라도 임금님 밥 그릇으로 쓰이면 소중히 여김을 받고 개 밥 그릇으로 쓰이면 아무렇게나 취급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복음은 원어인 헬라어로 유 앙겔리온, 영어로는 Good News, 우리 말로는 복음 (복된 소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유 앙겔리온’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페르시아가 B.C. 538 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의 권좌에 오릅니다.

따라서 페르시아는 그동안 바벨론이 지배하였던 나라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넘겨받아 통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배 영역을 더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케도니아(유럽)로 진출하여 그리스까지 침략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그리스는 규모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대군을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페르시아에 끝까지 대항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항복하면 속국이 되지만 대항하였다가 패하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붙잡혀 죽거나 노예로 팔려 갈 것입니다.

재산은 모조리 약탈당하고 건물들과 도시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대항하여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니 그리스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 달이 넘어도 전쟁터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없었고 사람들은 피를 말리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하루를 보내던 중 어느 날 멀리서 한 병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2km 떨어진 전쟁터에서 달려오는 그 병사는 비틀거리며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마조마해 하며 다가오는 그 병사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그 병사는 “승리는 우리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사람들 앞에 다가와 쓰러져서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큰소리로 ‘유 앙겔리온’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유명한 필로폰네세스 전쟁이었으며 이 사건이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 앙겔리온(ευαγγελιον)’는 ευ라는 기쁨과 αγγελιον이란 천사를 가리키는 두 단어가 합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뜻합니다.

당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병사를 생각하며 만든 새 단어였는데 이 단어를 그로부터 약 350 년이 지난 후 초대 교회에서 복음에 도입하여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 병사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한 후 곧 바로 복음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복받치는 희열과 감격과 확신을 가슴에 품고 말입니다.

(롬 1: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약속' 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는 복음이 인간이 만든 어떤 철학적인 사조나 신비주의적인 설화가 아님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간의 어떠한 지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정도로 복음은 지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구속사의 가장 절정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옛 언약, Old Testament)을 오실 메시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고, 신약(새 언약, New Testament)을 오신 메시야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 구약 모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유 앵겔리온, 복음 곧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롬 1: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롬 1: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단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함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다는 의미와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야가 나올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간증합니다.

(롬 1: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롬 1: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전 10: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시간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각자의 삶의 목표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능력이 없음에도, 그일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직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도 용서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롬 14: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롬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롬 1: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된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